



정책 언박싱 Unboxing

고양소식



고양이 확 바뀐다



02 교통고양, 교통혁명

고양의 교통혁명...
강남까지 20분

04 자족고양, 자족도시 "고양이 확 바뀐다!"

09 녹색고양 도시에 녹색을 입히면?

10 인권고양 노동존중 도시로!

06 재생고양, 도시재생 "마을에 활력을! 공간에 가치를!!"

11 이슈 토크하기 1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08 청년고양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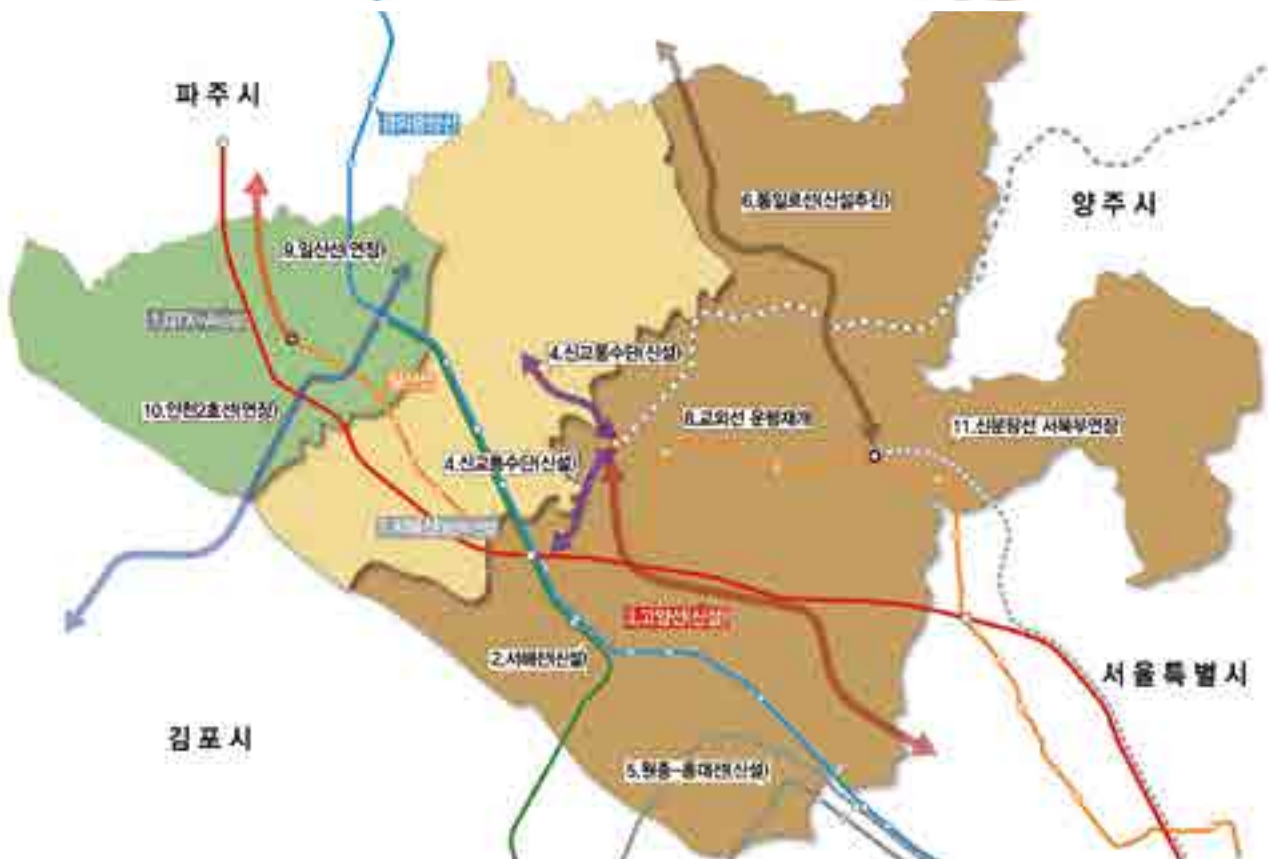
12 이슈 토크하기 2 대학생본인부담등록금 지원

고양의 교통혁명... 강남까지 20분

활짝 열린 사통팔달 교통망...자족도시 대전환 '청신호'



-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고양시 건의사업 모두 반영
- ❖ GTX-A 등 신(新) 철도망 구축·교외선 등 노선 연장...사통팔달 교통망 확보
- ❖ 꽉 막힌 도로 20여 개 정체 해소...시민 삶의 질 높여
-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고양누리버스·친환경전기차 등 교통에 복지·환경 더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고양시 건의사업 모두 반영

교통이 편리한 도시 고양! 모든 고양시민들의 열망이다. 지난해 고양시 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은 시 중점 추진 정책 1순위로 '교통'을 꼽았다. 고양시는 민선 7기 들어 시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왔다. 특히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은 정부 철도계획에도 오롯이 반영되어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 계획(안)에 고양시 건의사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발표 이후 미반영 사업에 대한 추가반영을 요구 중인 타 지자체 상황과 비교하면 쾌거라 할 수 있다.

❖ 노선별로 보면 ▲고양은평선 ▲인천2호선 일산서구 연장 ▲일산선 금릉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 삼성 연장 ▲대장홍대선이 발표되었고, ▲

조리금촌선(통일로선) ▲교외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리스트에 올랐다.

❖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 반영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발표(고양시 부분 발췌)

구분	사업명	사업 구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사업	인천2호선 고양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서구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삼성~용산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홍대입구
추가검토사업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성~금촌
	교외선	능곡~의정부



GTX-A 등 신(新) 철도망 구축 교외선 등 노선 연장... 사통팔달 교통망 확보

고양시는 신(新) 철도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교외선 등 기존 노선도 연장하여 사통팔달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우선, 운정에서 출발해 킨텍스·대곡·창릉을 거쳐 강남까지 20분 만에 주파하는 GTX-A 노선의 경우 202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창릉역이 신설되어 현재 관내 13개소에서 수직구 굴착을 완료, 본선구간 터널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

❖ 철도계의 서해안고속도로라 일컫는 수도권 전철 서해선 고양시 구간은 기존 대곡~소사 구간이었으나, 지난해 6월 경의선 선로를 이용해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와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서부광역철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해선 일산~소사 구간 사이 김포공항역 등 4개 환승역이 있어 서울지하철 3·5·7·9호선과 연계된다. 경기 서남부권과 서울 한강 이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져 고양시민의 생활권이 훨씬 넓어질 전망이다.

❖ 의정부와 고양을 한 번에 잇는 추억의 교외선도 2024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교외선 운영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고양시 교통정책에 한층 가속도가 붙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철도부문은 ▲고양선이 신설되고 ▲대곡~고양시청~식사 간 신 교통수단이 도입될 예정이며, ▲경의선도 증차되어 서울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중교통부문은 ▲중앙로~통일로 BRT 신설 ▲대중교통운영 지원 및 차고지신설비용 지원 ▲화전역 환승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도로부문은 ▲일산~서오릉 연결도로 신설 및 서오릉로 부분 확장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 ▲수색교 확장 ▲강변북로 서울시 구간 확장 ▲제2자유로 덕은2교 교차로 개선 ▲화전역~BRT정류장 연계도로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고양에서 서울 및 경기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다. 통일로와 비교하여 40분, 자유로보다 10분이나 단축되었다.



철도차량목업 전시회



고양시 20여 개 도로 상습 정체구간 해소 노력

고양시는 관내 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해소에 나서고 있다. 고양IC, 일산IC 등 나들목 병목현상부터 통일로·식사교차로 일원·고봉동 일원 등 19개 구간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 특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중앙로가 합류하는 일산IC는 고속도로 진출차량과 중앙로 운행 차량들이 밀집하여 출퇴근 교통정체가 심각했었다. 이에 고양시는 2018년 말부터 2년에 걸쳐 일산IC 진출 연결로를 추가 설치하고 하부도로 1개 차로를 신설해 기형적 구조를 바꿔 병목현상을 완화했다.

❖ 덕양구 행주IC 주변 행주산성 일대에서 제2자유로로 진입하는 진출입로 확보를 통해 강매IC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김포, 서울 등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통행시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서울에서 행주산성 일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관광지 접근성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으며, 현재 교통성 분석을 마치고 실시설계 중이다.

❖ 고양시는 앞으로도 ▲좌회전 전용 포켓차로 추가 ▲버스 베이 신설 ▲연결로 설치 등 저예산 고효율의 아이디어 행정으로 교통의 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일산나들목 교통정체 해소 위한 현장 방문



고양누리버스·친환경 전기차 보급... 교통에 복지·녹색 더해

❖ 고양시에는 특별한 버스 '고양누리버스'가 있다. N001~N007 버스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다. 송포동, 고봉동, 내유동 등 3개 노선이 지난해 1월 개통했고 이어 9월 3개 노선이 추가되었다.

❖ 이밖에도 고양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개발이익 환수를 적극 요구하여 지역개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삼송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기존 요구액 대비 절반 수준인 63억 원에 매입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전기차 등도 1,500대 이상 보급하고, 친환경 전기충전 인프라를 2022년 900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고양시 전역에 공유자전거 타조 1,000대를 보급해 교통에 녹색을 입히는 그린모빌리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양시는 또, 시민 통행기본권 회복을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앞장서고, 경의선 개통 12년 만에 경의선 급행열차 탄현역 정차를 시행하는 등 시민의 사소한 교통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

고양이 **확** 바뀐다!

2021년은 **자족도시 대전환의 해...**
미래 100년 성장 견인

자족도시(自足都市)?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만든 자급자족형 복합 도시로,
도시 내에서 일자리와 주거, 문화생활 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어 베드타운과 대비되는 개념

- ❖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고양방송영상밸리...초대형사업 착공 확정
- ❖ ▲창릉3기 신도시 ▲고양 성사혁신지구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신(新) 성장엔진 가동
- ❖ ‘고양특례시’ 내년 1월 정식 출범...일자리·미래 먹거리 넘치는 자족도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등 올해 착공

❖ 일산서구 대화동에 85만㎡ 규모로 조성될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입지 발표 후 장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었다. 이에 민선7기 고양시는 2019년 특별회계를 만들고 현금·현물 출자, 공사채 발행 승인 등을 통해 사업비 1천억 원 전액 마련에 성공했다. 당초 자금 계획보다 2년이나 앞선 것이며,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1년 반 만에 이뤄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고양시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승인까지 받음에 따라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었다. 총 775억 원의 투자유치 기금을 조성하고 입주기업 인

센티브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4차 산업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비 20억 원을 출자, 고양시 제1호 ‘고양벤처펀드’도 만들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올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완공 예정이다. ❖ 무산 위기를 겪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은 논의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건립부지와 사업비 62%를 미리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 제3전시장의 건립되면 킨텍스 전시면적은 총 18만㎡로 늘어난다. 아시아 5위권, 세계 20위권 전시장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국제행사

를 유치하고 국내전시를 세계적 규모로 키울 수 있다. 제3전시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완공 예정이다.

❖ 국내 최대 규모(2만 석)의 **C라이브시티** 아레나(대형 원형공연장)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C라이브시티에는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놀이 시설, 한류 콘텐츠로 꾸민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 일산동구 장항동에 70만㎡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올해 중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영상·문화 관련 콘텐츠 기업을 한 곳에 모아 **킨텍스 제3전시장**, **C라이브시티** 등과 시너지를 내고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C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창릉 3기 신도시, 고양성사혁신지구,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신(新) 성장엔진 가동

❖ 총 3만 7천 호가 들어서는 **창릉 3기 신도시**. 고양시는 이 지역에 120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청년·스타트업 기업이 이 부지에 보금 자리를 트는 한편,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 지원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 창릉지구 전체 면적의 36%(285만㎡)를 공원, 녹지 등 저밀도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고, 전체사업비 20%에 달하는 2조 원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해 삶의 질도 높인다.

❖ 2014년 폐교 이래 장기간 방치된 구 삼송 초교 부지도 혁신산업과 청년창업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지난해 8월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선도 사업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총 6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 예정이다.

❖ 정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1호 사업으로 선정된 **‘고양 성사혁신지구’**는 연면적 10만여㎡에 총사업비 2,91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도시재생 성장모델 사업이다. 구도심으로 침체된 덕양구 성사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주거·기업·행정·생활SOC·공영주차장 등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킨텍스 2단계 지원부지에는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2024년까지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서 고양시가 전국 유일로 선정되어 국비 110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콘텐츠 IP(지식재산)’는 출판·영화·방송·웹툰·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1,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및 IP 발굴·협업 지원 600건, 수출계약 3억 달러 등의 경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사 예상 조감도



※ 이미지는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 조감도이며, 고양 신청사 조감도는 향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3개 공공기관 이전 및 고양신청사 등 새로운 활력 더하다

❖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이 고양시 이전을 확정했다. 앞으로 고양시가 경기도 서북부 문화예술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 또, 고양의 새로운 100년을 일궈낼 신청사의 건립 부지도 지난해 5월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건립기금 1천억 원을 확보했으며 **저예산 고효율의 신청사**를 건립해 특례시에 걸맞은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2023년 착공,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성사혁신지구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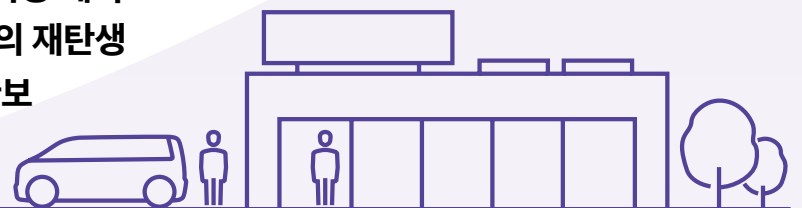
“마을에는 **활력을!**
공간에는 **가치를!!**”

도시재생 바짝 속도내며 도심 곳곳 새바람

도시재생(都市再生)?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 물리적 환경 및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종합적 측면에서 도시를 활성화시켜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 ❖ 덕양구 원당·화전·삼송·능곡, 일산서구 일산 등 5개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 더 빠르고 강력한 도시재생...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연내 착공 계획
- ❖ 백마화사랑·아쿠아스튜디오·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등 공간의 재탄생
- ❖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등 안전 확보



고양 드론앵커센터,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가시화... **5개 지역 핵심 사업 본격화**

고양 드론앵커센터 조감도



민선 7기 고양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마을에는 활력을, 공간에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덕양구 원당·화전·삼송·능곡, 일산서구 일산 등 총 5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고양시 드론산업 전진기지가 될 '고양 드론

앵커센터'는 경의중앙선 화전역 인근 4,52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140억 원이 투입된 센터에는 실내 드론비행 체험장, 드론 기업 및 연구개발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고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 한강 대덕생태공원에 조성되는 고양 대덕 드론비행장은 기업의 드론 성능테스트 및 시민 레저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 총 5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산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경의중앙선 일산역 앞 연면적 2만1,000㎡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일산서구보건소, 공동육아나눔터, 창업 공

간 등 행정·복지 기능이 집약된 복합 건축물과 행복주택 132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가 들어서며, 올해 말 착공해 2023년 준공 예정이다.

❖ 구(舊) 능곡역사를 리모델링한 '토당문화플랫폼'은 고양시 뉴딜사업 중 가장 늦게 선정되었음에도 지난해 10월 준공을 마무리짓는 등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카페·전시장·주민 교육장·공유주방 등으로 꾸며진 토당문화플랫폼은 지난 3월 개관 이래 능곡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이밖에 덕양구 삼송지역 '마을 집수리 지원', 능곡지역 '능곡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도 주민의 호응이 높다.



더 빠르고 강력한 도시재생...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연내 착공 계획

덕양구 삼송동 268-1번지 지역은 개발보다 보존에 무게를 두는 도시재생지역이며, 2007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 건축물이 많았다. 이에 고양시는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창호·담장 등의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4호, 2020년 8호를 수리한 데 이어 2021년 11호 포함 2022년까지 총 40호 주택 수리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50년 역사에 빛나는 능곡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능곡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 역량강화사업, 바우처지원사업, 시장매니저육성사업, 노후시설 보수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오랜 세월 명맥을 이어온 전통시장 살리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덕양구 성사지역은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총 사업비 2,915억 원이 투입되며 연내 착공,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혁신지구는 연면적 9만9,836㎡에 지상 25층 규모로 조성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와 교통정보센터 등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기업 입주공간, ▲건강증진센터를 포함한 각종 생활SOC(생활편의 증진시설) 등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다.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LED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고양시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대규모 투자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대형 도시재생 사업이다. 특히 인허가 과정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전체면적

성사혁신지구 조감도



의 비율)도 최대한 완화하는 등 특례로 신속하고 강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고양 성사혁신지구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 등과 함께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시행계획인가(착공 전 마지막 단계)를 받으며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 시는 고양 성사혁신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인구 유입 및 기업 유치로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등 침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마화사랑·아쿠아스튜디오·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등 공간의 재탄생

백마화사랑 전경



개발로 많은 것이 지워지는 요즘, 고양시는 옛 공간이 가진 가치를 재발견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80년대 청년들의 진한 추억이 담긴 일산동구 백마역의 청년주점 '백마화사랑'이 대표적이다. 고양시는 40여 년 역사의 화사랑 건물을 지난해 매입하고 LP 텐테이블, 낡은 풍금, 방명록 등 수십 년 전의 소품과 흔적을 그대로 살려 리

모델링했다. 시는 올해 1980년대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그 시대 감성을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 일산동구에 위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도 이달 중 평화·인권·민주주의 체험 기념관으로 재탄생하여 개관한다. 사저는 1996년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고(故) 이희호 여사가 2년 넘게 거주하던 곳이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사용했던 침실, 응접실, 책상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영화 '기생충'을 본 사람이라면 반지하의 실감나는 홍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장면은 바로 덕양구에 위치한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다. 방치된 폐정수장이 리모델링을 거쳐 수조형 특수촬영 스튜디오로 변신한 사례다. 2011년부터 운영한 이래 지난해까지 기생충, 명량, 해운대 등 156개의 영화 명작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 1기 신도시 조성 30년, 고양시는 노후주택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10년간 총 100억 원을 목표로 리모델링 기금 적립을 추진 중이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553개 단지 중 22개 단지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했으며, 매년 교체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청년 희망지대 완성으로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다

- ❖ 28청춘창업소, 높은 가성비로 초기창업자에게 인기
- ❖ 청년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고양 청년의 특별한 다방 청취다방
- ❖ 내일꿈제작소, 창업교육·직업훈련 기회 및 공유오피스 제공



28청춘창업소 외관

기발한 아이디어 창업으로 이어지다... '28청춘창업소'



참신한 아이디어의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가 사업비 100%를 투자해 만든 창업공간 '28청춘창업소'.

❖ 2019년 11월 덕양구 화정동에 개소한 이래 누계매출액 14억 원 (2020년 기준)의 성적을 냈다. 지적재산권 46건 획득, 9억 원이 넘는 투자유치(16개 회사)가 이뤄지며 청년창업 지원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2개 기업이 이곳을 거쳐 갔으며, 현재 IT·제조·방송영상분야 등 25개 기업이 입주해 50여 명이 창업에 몰두 중이다.

❖ 지난해 10월에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등이 이뤄지는 메이커스페이스(작업공간)가 마련되었다. 고양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응모하여 초기구축 사업비용으로 첫째 국비 1억 5천만 원, 향후 5년간 운영비 지원이 확정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온라인화상회의 시스템 사업도 유치해 청년기업의 비대면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 28청춘창업소는 올해 입주율 90% 이상 달성, 지적재산권 10건 이상 출원, 입주기업 매출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 협업해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경영 컨설팅·마케팅 교육·지적재산권 등록 및 출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시에는 특별한 다방이 있다? 취업과 소통이 있는 '청취다방'



고양시에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름하여 '청취다방(청년들의 취업과 소통이 있는 수다방)'.

❖ 청취다방은 2019년 9월 덕양구 화정터미널 2층에 개관한 이래 취업·창업 특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청년스터디 모임을 위한 공간 대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카페 23개소에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청취다방은 올해 디지털 뉴딜산업과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취업 특강,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사진 무료촬영,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청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코로나 19 우울감 극복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희망지대 마침표 찍다... '고양 청년 내일꿈제작소'



고양시는 청년 창업 및 직업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고양 청년 내일꿈제작소'를 준비 중이다.

❖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을 포함, 총 176억 원을 투입하여 덕양구 화정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며, 올 7월 착공 및 2023년 완공 예정이다.

❖ 제작소는 청년들이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근 늘고 있는 청년 활동가 지원을 위해 공유사무실, 자유로운 창작 및 문예활동 공간도 지원한다.

❖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복합공간으로 내일꿈제작소가 건립되면 청년창업사무실 '28청춘창업소', 청년커뮤니티공간 '청취다방'과 함께 '고양시 청년 희망지대'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 희망지대 반경 300m 내에 청년지원 시설이 모두 위치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내일꿈제작소 조감도

신도시 30년, 고양시에 녹색을 입히면?

고양시, 녹색 옷 갈아입고 삶의 질 UP, 기후위기 STOP

- ❖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국제적 보존가치 인정
- ❖ 호수공원 녹지축, 푸른숲 100리길 등 녹지 강화
- ❖ 신재생 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 환경에 투자
- ❖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COP28 유치 나서



장항습지, '람사르습지'로 등록 레거... 국제적 보존 가치 인정

다양한 생태종의 보고 장항습지가 지난달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뤘다. 장항습지가 람사르협회 지정 국제습지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장항습지는 재두루미, 저어새,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을 관찰할 수 있는 도심 속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다. 조수간만으로 형성된 갯골과 말뚝게가 공생하는 버드나무숲은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환경적 가치가 큰 곳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탐조대를 개관하여 장항습지의 생태환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심 속 허파'... 시민 삶과 밀접한 환경정책 선보여

고양시는 환경을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투자'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적극적 환경정책으로 잘 갖춰진 환경 도시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 우선, 고양시에 새로운 랜드마크인 '공중 보행로'가 생긴다. 시는 일산문화공원과 일산호수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대형 보행통로를 올해 7월 착공 예정이다.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의 인공바위도 철거, 자연석을 활용해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난달 재가동에 들어갔다.

❖ 공원일몰제로 없어질 위기에 놓였던 '장기미집행 공원' 6곳을 되살리고 실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야외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행주산성·대덕·화정 공원 등 3개소는 창릉신도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토당제1·탄현근린공원의 2개소는 토지매입 추진과 더불어 착공을 위한 사전작업이 ▲관산근린공원은 지난 4월 착공식을 치르고 토목·조경 등 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 대장천, 공릉천, 창릉천 등 7개 하천 약 40km 구간에 고양 하천 푸른숲 100리길을 조성하였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메타세쿼이아 등 26종의 수목 약 12만여 그루를 식재하고 쉼터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거닐 수 있는 도심 속 숲길을 만들었다.

❖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며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미세먼

지 상습 발생지역인 제2자유로 6km 구간에 측백나무, 산철쭉 등 5만9천 그루를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을 조성했다. 연간 2천여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해 경유차 1,255대 분량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 환경에 적극 투자

❖ 고양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의 20%를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104억 원을 투입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3개 에너지 자립마을과 시민햇빛발전소 7개소를 건립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약 7배 확대되었다.

❖ 지난해 3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주택 내 탄소저감 청정단지를 조성하기로 협약, 첫 사업으로 향동 A4지구 행복주택 모든 세대(498세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연간 1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 친환경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인 고양바이오매스 시설을 운영해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여 연간 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내연 수송기관을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그린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 2024년까지 시비 559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마을버스의 75%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저공해 차량 1만7천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COP28 유치 나서

고양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을 내세웠다. 이후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92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약 2조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은 이때, 2023년 COP28에서 이뤄질 논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여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기후변화대응 논의를 시작했고 녹색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만큼 개최 도시로 적격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 도시 향해 한 걸음

- ❖ 아프면 쉬다...유급병가 지원 등 최소 안전망 구축
- ❖ 노동권익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노동자 버팀목 역할 톡톡
- ❖ '한시적 양육비에 관한 조례'...인권사각지대 촘촘히 메우기

아프면 쉬다...유급병가 지원조례 등 최소 안전망 구축

단시간·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취약계층은 아프거나 다쳐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고양시에도 1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3만5천 명(2020년 기준)의 영세 사업자가 있다. 이에 시는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 및 관련 정책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

❖ 시는 우선, 노동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받도록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노동 취약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고양시민이 대상이다. 아파서 입원할 시 하루 8만1,120원(최대 3일)을 고양페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시는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어 올 1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휴게실·편의시설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달종사자 현황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배달종사자 지원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배달종사자가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구입해 신청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금액의 10만 원 이내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배달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결정된다.

❖ 근로능력 등을 이유로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지난 2019년부터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 첫 사례로 지난해 120여 명에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했다.

❖ 고양어린이박물관 등 시 산하기관 위탁시설 3곳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올해 정식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 영역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도시재생센터 운영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노동권익센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노동자 보호 버팀목 역할 톡톡

❖ 지난해 2월 덕양구 화정동에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었다.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노동복지회관을 노동권익센터로 변경하면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영역으로까지 그 역할과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545건의 노동문제상담을 진행했다. 노동법률지원·노동인권교육·노동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총 3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했다.

❖ 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공간으로 이전,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며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 영세사업장 780개 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홍보·계도했고, 올해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 시는 이밖에도,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권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가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기고문 한강 통행료가 웬 말... 시민 쌈짓돈 그만 걷어가라

❖ 일산대교 통행료 더는 못 내...경기 서북부 민심 부글부글
❖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그만 걷어라

‘통행료 폭리’ 취하며 국민행복 추구...‘이율배반’의 극치

경기 서북부 시민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해소하고자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행된 “싫으면 돌아가라”식 고액 통행료 징수는 시민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이러한 권리침해의 배후에는 일산대교 100% 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있다. 공단은 국민 돈으로 일산대교를 인수하고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계속 해서 받아내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교환에 사용하는 것이지, 이자를 받아 더 늘리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른바 ‘화폐불임설(貨幣不妊說)’을 주장했다. 영국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악마로 표현했다. 그렇다면 자기 돈 한 톨 들이지 않고 고금리 이자에 통행료 수입까지 챙기는 국민연금공단의 행태는 정당한 것인가. 공단이 지금까지 이자비용으로 가져간 수익만 2천억 원이 넘고, 경기도 보조금으로는 430억 원을 받아갔다.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슬로건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현대는 ‘의·식·주·통(衣食住通)’ 시대...교통은 필수 전제 조건

현대인은 ‘의식주’에 ‘교통’을 더한 ‘의·식·주·통(衣食住通)’ 시대를 살고 있다. 교통과 도로는 이제 우리에게 생계이고 안전이며 문화다. 그렇기에 교통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개별 국민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기본적 교통 서비스를 보장받아야만 한다. 이제껏 교통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해온 경기 서북부 시민에게는 더욱 응당한 권리다.

과거 IMF구제금융 시절, 불가피하게 민자로 건설한 일산대교 정산문제는 국민연금과 경기도가 협의해 풀어나갈 사항이다. 이제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낸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찾아와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고양·김포·파주시 한뜻으로 뭉칠 것

분명히 밝힌다. 일산대교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여기는 국민연금공단은 각성하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사업주체인 경기도에 이양하라. 이를 위해 고양·김포·파주 204만 시민은 일치단결하여 그 뜻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주)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은 더 이상 외면으로 일관하지 말라. 지난 십수 년간 묵살되어 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 응답할 차례다. 국민연금공단이 진정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지향한다면, 이제 ‘공익 실현을 위한 대승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진행상황

2021. 1. 18.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 최초 제기

2021. 2. 3.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 발표



2021.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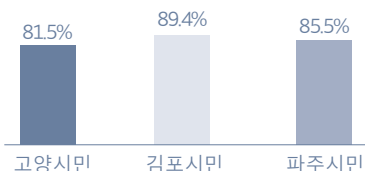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론조사 발표

기간 2021. 2. 18.~2. 20.

대상 2,000명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결과 찬성 80% 넘어



2021. 2. 23.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온라인 서명운동 시작

2021. 3. 22.

고양지역 26개 시민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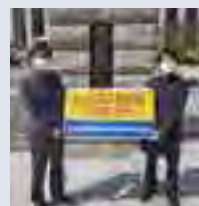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촉구 성명 발표

2021. 4. 13.

공무원 노동조합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 참여

2021. 4. 19.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1. 4. 26.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릴레이 시위

2021. 5. 7.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간담회 실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 지원사업 시행

- ❖ 전국 세 번째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정
- ❖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기대

고양시, 전국 세 번째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나서다

고양시는 제2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안」 및 「하반기 등록금 지원 예산」을 원안 가결시키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이 사업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중 ▲국가장학금,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금, ▲학교 또는 부모의 직장에서 받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등록금'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시는 올 2학기부터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해 1인당 연간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한부모가족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장애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셋 이상)의 대학생은 각각 50%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매 반기별 공고일 및 지급일 현재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고양시민(단, 직계가족이 없는 학생 예외 적용)으로, ▲고양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9세 이하 대학생이다. 학업 책임감 고취 차원에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해 지원한다.

❖ 고양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는 안산시, 횡성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 시는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이 조례를 준비해 왔으나, 시의회에서 한차례 부결, 한차례 보류를 거치며 지속적인 논의와 정비를 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및 성적요건 도입 등은 고양시와 시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 연간 소요되는 46억 원의 예산은 ▲기존 자활기금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통합하고, ▲2022년 마무리되는 초중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타의 교육·복지사업 예산 감축 없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기대

❖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 1인당 연평균지원금은 129만 원(학기 평균 64만5천 원), 지원 대상자는 4,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 고양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학생 교육비 경감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학자금대출로 인해 늘어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던 다자녀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등록금 지원사업을 향후 고양특례시의 대표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등록금은 연간 747만 원. 여기에다 교재비, 기숙사비 등까지 합하면 1인당 연간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활한 대면교육을 받지 못함에도 학교 측이 등록금을 감면하지 않아 학생 가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등록금 지원예산 23억여 원을 확보하고 8월 중하순부터 11월 말까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

지원목적

복지대상자와 다자녀 대학생 가구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등록금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 중위 소득 대비율	지원비율	연간 지원 한도액
국민기초 수급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150만 원
차상위 대학생	50% 이하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한부모가족 대학생	52% 이하		
- 장애 대학생 - 다자녀가정 대학생	200% 이하		

거주기준

지급기준일(공고일)과 지급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가구원: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가족관계등록부 상 생존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은 예외

연령기준 29세 이하 대학생

대상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필수

성적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성적 70점(C 학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 '본인부담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학교·부모직장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본인부담금